

어린이들의 놀이도시 '창의력 놀라워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어린이놀이도시 in 광주' 캠프

4~6학년 160여명 2박3일

종이로 집 짓고 마을 운영

예술가 16명과 문화 체험도

내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공개

'해마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전시관에 가득했다. 20일 오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는 160여명의 아이들이 박스를 자르고 이어붙여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었다. 똑같은 형태의 집을 짓는 게 어린이라면, 역시 아이들의 집짓기는 달랐다. 전시관 곳곳에 자리 잡아 가는 상자 집들은 비슷한 모양이 단 하나도 없었다. 지붕을 올리고, 벽을 만드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한 순간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광주 지역 어린이들이 방학 중 2박3일간 예술가들과 함께 노는 창의예술캠프 우락부락 광주 프로그램 '어린이놀이도시 in 광주'의 첫날 풍경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2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초등학교 4~6학년생들이 참여해 진행된다. 2박3일간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예술로 표현하고, 체험한 결과물들을 캠프 마지막 날인 22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공개 전시한다. 이 전시에는 아이들의 가족들도 초대된다.

이곳은 시간도 다르게 흐른다. 전시장 한쪽 벽을 장식한 거대한 시계는 1시간이 10년을 의미하며, 하루는 모두 10시간이다. 3일간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 매일 10년씩, 가상의 30년을 이곳에서 사는 셈이다. 아이가 성장을 해 어른이 되는 과정을 3일간 담아내기 위한 장치다.

전시관 중앙에는 자유롭게 앉아 토론할 수 있는 광장인 '아고라'가 설치됐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각 마을의 존장을 정하고, 이 존장 중 제비뽑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는 '아고라 식 민주주의'도 경험하게 된다.

또 참가어린이들은 '운명의 뽑기'를 통해 16개의 일터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날, 2박 3일간 자신들이 자야 할 집을 골판지로

짓는다. 각 마을의 이름을 짓고 광장에 모여 자신들의 마을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어린이놀이도시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 날, 16명의 아티스트와 함께 촌락을 꾸리고 일과 놀이를 하며 직업체험을 문화예술로 온전히 경험한다. 마을에서 일하고 놀고 광장에 모여 마을 존장을 선출하고 회의도 하며 그들만의 놀이도시를 만든다.

맛있게 먹고 쿨쿨 자고, 예쁘게 치장도 한다. 2박 3일의 제한된 공간의 현실이지만 매우 특별한 상상의 공간이 된다. 이 상상의 공간은 마지막 날 개방해 현대미술 작품으로 전시할 예정이다.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지역의 기획자가 공동기획한 '어린이놀이도시 in 광주'는 어린이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의한 도시를 꾸미는 방식이다.

또 16 개의 일터(마을)는 다양한 직업의 아티스트로 구성된다. 어린이놀이도시를 지속적으로 꾸미고 만들어가는 시설관리소와 목공소가 있다.

한쪽에서는 디제잉무도회장, 천막소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놀이도시를 돌아다니며 버스킹 하는 켄배공연팀도 있다.

이색 공간도 눈길을 끈다. 뽕장이 병원·약국은 간호사와 함께 상상의 신약개발과 치료 퍼포먼스 체험을 하고 장난감연구소에서는 화가와 함께 아날로그식 장난감을 만드는 공간이다. 과학기술연구소에서는 과학엔지니어와 함께 키트 조립 체험을 할 수 있다.

캠프에 참가한 유하민(광주양지초교 6년)군은 "우리들 손으로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드는 과정이 재미있다"면서 "어울려 일을 하니 친구와 더욱 친해진 느낌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670-5766.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열린 광주문화재단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놀이도시 in 광주'에 참여한 초등학교생 160여명이 종이를 잘라 자신만의 집을 만들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방성춘 명창 '사제 판소리 한마당'



방성춘 명창의 공연모습.

내일 전통문화관
제자들 함께 출연

광주시지정 무형문화재 방성춘 명창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사제 판소리 한마당'이 펼쳐진다.

방씨는 오는 22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리는 토요상설공연에서 '서봉 방성춘의 판소리 한마당-공감'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방성춘 명창과 함께 오상원, 김원경, 가야금 송은숙, 김수연, 가야금 병창 박선옥, 박미정 선생 등 제자들이 함께 출연한다.

오상원 명창의 수궁가 중 '악성가' (용왕이 약 짓는 대목)를 시작으로 김원경 명창이 심청가 중 심봉사가 심청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배는 고파' 대목을 부른다. 또 송은숙 명인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김수연 명창이 수궁가 중 '토끼 화상 그리는 대목'을 들려준다.

방성춘 명창은 홍보가 중 '홍보 둘째 박'은 대목을 들려주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함께 민요를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한다.

한편 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6호 판소리춘향가(동초제) 예능보유자 방성춘 명창은 13살 때 박채선 명창(1902년 출생)에게 '춘향가'를 배우면서 판소리 공부를 시작해 공대일, 정광수, 오정숙 선생에게 '홍보가' '수궁가' '심청가' 등을 사사했다. 문의 062-232-159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연극으로 풀어낸 고봉·퇴계 사단칠정논쟁

내일 광산구 월봉서원서 '드라마 판타지아' 행사



'500년전 월봉 서원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광산 출신 고봉 기대승과 퇴계 이황의 사단칠정논쟁을 드라마로 만난다. 조선 시대 선비사상과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광주 광산구와 교육문화공동체 결은 22일 오후 5시 임곡동 광곡마을 월봉서원에서 '드라마 판타지아'〈사진〉행사를 연다.

지난해 문화재단의 공모에 선정된 광산구가 '2015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옛 선비들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는 '서원체험'과 대동연극 한마당인 '드라마 판타지아'로 구성돼 있다. '드라마 판타지아' 연극은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6살의 나이, 국립대

총장과 말단 공무원에 해당하는 지위, 경상도와 전라도라는 거리 차이를 극복하고 1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펼친 고봉과 퇴계의 사단칠정논쟁을 쉽게 풀어낸다.

특히 모든 관객들은 유생복을 갖춰 입고 입장하며 중간 중간 연극에도 참여한다.

연극에 앞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예절(다례 체험), 예술(자경작자 만들기·목판 탁본 체험), 놀이(투호·유생복 포토존), 서원 이해(고봉 영상 상영·서원 사계 사진전·철학자의 길 산책) 마당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기며 옛 선비들의 생활을 가늠해 본다. 이날 공연과 체험은 무료다.

문의 062-960-82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국립공원 무등산을 품에 안은 **休·安·林**의 궁전호텔 무등파크가 여러분을 **VIP**로 초대합니다

고품격 맞춤 웨딩전문호텔 무등파크

- 로열 스위트룸 1박 무료 제공
- 사우나 & 조식 2인 무료 제공
- 꽃길(조화) 무료 제공
- 3단계의 및 축배용 와인 1병 무료 제공

빔프로젝트, 식사테이블 장식, 페백실 대여, 혼구용품 제공

일반웨딩 200명에서부터 대형웨딩 1,000명 수용 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800대 수용가능)

호텔무등파크 대표 062.226-0011 예약실 062.221-2700